

# 광주공원 청춘빛포차광장 ‘버스킹 명소’ 거듭난다



시, 26일~5월 매주 토요일 공연 정효·해밀·소리 등 20개팀 참여 미디어아트플랫폼 미디어월 중계 “열린 시민공간·문화거점 탈바꿈”

주차장뿐만 사용됐던 광주공원 앞 ‘청춘빛포차광장’이 ‘청춘 버스킹 명소’로 거듭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공원 앞 청춘빛포차광장에서 오는 26일부터 5월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8시 ‘청춘문화누리터’ 공연이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청춘문화누리터’에서는 매주 주말 어쿠스틱·재즈·아카펠라 등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광역시는 ‘청춘문화누리터’를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첫 번째 실증사업으로 운영, 기후환경 편익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대·자·보 도시 효과를 검증하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청춘문화누리터는 ‘청춘버스킹’을 주제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버스킹 20개 팀이 포크, 어쿠스틱, 재즈, 아카펠라, 색소폰 등 다양한 장르로 시민의 감성을 두드린다.

참여하는 버스커는 △26일 정효(어쿠스틱), 헤디(어쿠스틱 팝), 디기리어쿠스틱밴드(어쿠스틱), 우물안개구리(포크) △5월3일 해밀(대중음악), 란지밴드

(어쿠스틱재즈), 김도브라스(색소폰), 김나린(핑거스타일기타) △5월10일 사운드힐즈(대중가요), 솔아(어쿠스틱), 파티스트릿(어쿠스틱 팝) △5월17일 아홉달(어쿠스틱), 김경호(멀티악기), 섬과도시(어쿠스틱) △5월24일 싱어송라이터 소리(어쿠스틱), 무드리스트(펑크), 튠에이드(아카펠라) △5월31일 재즈밴드 M.o.C.(재즈), 집시유랑단(발칸 집시재즈/인디포크), 최의목(색소폰) 등이다.

청춘빛포차광장 인근 회경루잔디밭 야외무대에서는 26일부터 5월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5시 도심 속 전통문화 예술공연 ‘회경루: 더 타임리스스테이지(The Timeless Stage) 2025’가 열린다.

다. 전통행렬 퍼포먼스, 전통타악, 연희놀이 등 융합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며, 버스킹 공연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외벽의 미디어월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이나 광주문화재단 예술누리팀 (062-670-57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청춘빛포차광장이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시민의 일상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젊음과 문화가 함께하는 청춘문화누리터 운영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 광주시, 6년만에 학교밖청소년 체육대회 개최

### 내일 광주청소년수련원서

광주에서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체육대회가 6년만에 열린다.

광주광역시와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5일 광주청소년수련원에서 ‘제5회 학교밖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학교밖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즐거운 체육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는 체육행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6년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체육대회는 기관별 입장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개회식, 꿈드림청소년단 위촉식,

대표 청소년 포부 발표, 선수 대표 선서 등 순으로 진행된다.

체육행사는 △공굴리기 △파도타기 △하늘높이뛰기 △줄다리기 △미션 달리기 등 팀별 대항전 △파이프플레이 △양궁 △물병게임 △수학문제 풀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체험부스와 꿈드림청소년단 정책 수요 조사 부스, 코인으로 운영되는 매점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체육대회는 일상속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공유자원을 활용하며 현수막 사용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성아 기자



광주 서구, 덕흥동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23일 서구 덕흥동 파크골프장에서 잔디와 안전그물망 등 주요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 전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신청하세요”

### 만기시 원금 2배·이자 수령

전라남도가 5월2일까지 ‘2025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7월 총 825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전라남도청과 청년이 함께 통장을 개설하고,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성실히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자립지원금을 매칭해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원금의 2배)과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980년부터 2007년 사이

에 출생한 청년으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90일) 이상 근로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 또는 사업자여야 한다. 또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약 287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전라남도나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청년 자립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금까지 총 3770명이 만기 혜택을 받아 누적 지급액은 약 275억 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주거 마련 및 창업 준비, 학자금 상환 등 실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지현 기자

## 전남도-중국 상하이 문화상회 대표단 교류

중국 상하이 문화상회 대표단이 2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문화산업 주요 기관과 단체를 방문해 두 지역 간 문화교류 및 문화산업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다.

상하이 문화상회는 중국상하이시 공상업연합회 산하기관으로 120여 개의 영상, 예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 기업회원으로 구성돼 문화산업 국제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 문화상회 대표단은 지난 21일

전남 동부청사에서 진행한 교류간담회에 이어 23일까지 전남영상위원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천연염색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한·중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남이 보유한 문화콘텐츠와 도내 콘텐츠 기업의 역량을 상하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알려 문화산업 분야에서 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 광주시, ‘시민 정책평가박람회’ 9개월간 대장정

### 24~30일 후보선정 온라인조사 연말 ‘올해의 베스트 10’ 선정

시민이 직접 광주시의 우수정책을 선별하고 심사하는 ‘정책평가박람회’가 9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광주광역시는 ‘스타후보정책선정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정책평가박람회’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24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주온(ON) 시민소통 플랫폼과 기관 행정포털에서 각각 실시된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각 실·국으로부터 △편리

한 도시(교통·안전) 12건 △꿀잼도시(관광·문화·체육) 16건 △돌봄도시(복지·돌봄) 13건 △활력도시(산업·경제) 13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교육·청년) 11건 등 5대 분야별 주요 정책 65건을 제출 받았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실·국에서 제출된 65건의 정책 중 올해 기대되는 정책을 5대 분야별로 2개씩 총 10개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라 분야별 6~7건씩 총 30여 개의 ‘스타 후보정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5월24일 ‘시민의 날’에 이들 후보 정책 담당자가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정책 설명을 하고 홍보하는 현장평가가 이

뤄진다. 하반기에는 통장단·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 리더들의 평가도 진행된다.

오는 12월에는 ‘2025 광주를 빛낸 스타 정책 경진대회’를 열어 ‘올해의 베스트 10 정책’을 선정한다.

올해 정책평가박람회는 시민 참여와 평가대상을 공공공간까지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실·국·자치구 추천으로 스타정책 시민평가단을 구성했으나 올해는 시민공모 방식으로 확대 모집해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평가·스타정책 경진대회에 저작권(카피라이트) 온라인 이벤트, 기획영상 제작 등을 통해 시민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평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성아 기자

##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생필·의약품 지원

전라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생필품 및 의약품을 무료로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사회단체와 협력해 4월에 생필품, 8월에 의약품을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생필품은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에서, 의약품은 전남도

의사회 의료봉사단(단장 김일환)에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생필품 1100세트(6400만 원 상당), 의약품 500세트(1000만 원 상당)로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구성됐다. 생필품은 삼푸, 비누, 치약, 칫솔, 세제 등이, 의약품은 소화제, 진통

제, 감기약, 구충제, 알러지약 등이 포함됐다. 특히 물품 운송과 배분 작업에 동신대학교 학생 3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의 가치를 직접 실천한다.

물품 지원은 2025년 전남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전남도의사회가 공급하면 시군에서 수령해 계절근로자에게 직접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지현 기자